

7,216을 찍고 6,869로 — 랠리가 하루 안에 뒤집혔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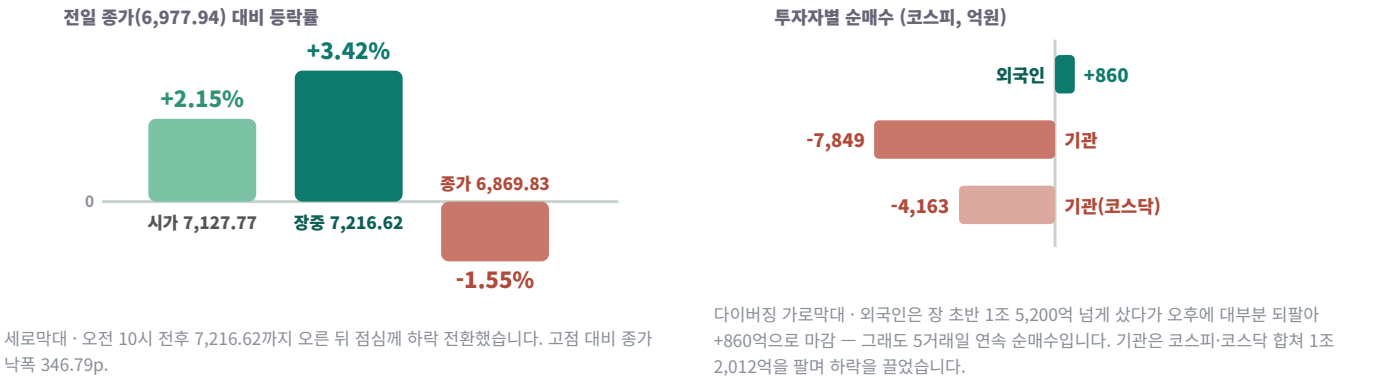
— 장중 +3.42%가 종가 -1.55%로,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끝난 날

휴장을 하루 쉬고 열린 국내 장은 오전과 오후가 다른 장이었습니다. 시가부터 2% 넘게 뛰어 장중 7,216.62(+3.42%)까지 갔다가, 점심께 하락 전환해 6,869.83(-1.55%)으로 마감했습니다. 고점에서 종가까지 낙폭이 346.79포인트입니다. 5거래일 연속 상승은 6거래일째에 끊겼는데, 끊은 건 미국발 재료 두 개가 하루에 겹친 구조였습니다.

① 채점 — 46호가 예고한 "5거래일 연속이 이어지는지"

예고 (46호)	결과	판정
8/18 국내 장 재개 — 금요일 미국 소비 지표를 반영하는 첫 거래일. 5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지는지	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다만 지표 반영 자체는 예고대로였습니다 — 오전엔 실제로 그 재료로 급등했고, 오후에 다른 재료가 덮었습니다. 자세한 구조는 ④	채점 완료

② 하루 흐름 — 전강후약



③ 종목 — 장중 고점과 종가가 다른 얘기를 한다

삼성전자

268,500원

-2.19% · 장중 283,000원(+4.92%)까지

SK하이닉스

1,662,000원

+1.03% · 장중 1,792,000원(+8.94%)까지

코스닥

834.20

-3.52% · 기관 4,163억 순매도

반도체 투톱이 오전 급등을 끌었고, 오후 반납도 이 두 종목에서 컸습니다. 삼성전자는 +4.92%에서 -2.19%로 마이너스 전환했고, SK하이닉스는 +8.94%에서 +1.03%로 상승분 대부분을 내놨지만 플러스는 지켰습니다. **코스닥이 -3.52%로 코스피보다 더 크게 빠진 것도** 이날의 특징입니다.

④ 오전의 재료와 오후의 재료 시차가 하루에 이틀치를 몰아왔다

구분	무엇이 들어왔나	방향
오전	금요일 미국 소매판매 -0.6%·소비심리 51.0 — 국내 장이 휴장이라 나흘 묵었던 "동결 쪽" 재료. 원/달러도 1,411.8원으로 10개월 만에 최저(원화 강세)	금등 출발, 장중 +3.42%
오후	간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5.31%(2007년 이후 최고)와 미·이란 휴전 만료발 유가 급등. 같은 날 도쿄에서 일본 10년물이 30년 만의 최고를 찍으며 닛케이가 -2.54% 급락. 여기에 기관 차익실현 매물이 겹침	하락 전환, 종가 -1.55%

보도가 지목한 요인 기준입니다. 43~45호에서 짚은 "국내 장은 미국 지표를 하루 늦게 받는다"의 구조가 이번엔 연휴를 꺼서 — 금요일 화재와 월요일 악재를 같은 날 오전·오후에 나눠 받았고, 오후엔 일본발 재료까지 실시간으로 겹쳤습니다.

⑤ 간밤 미국 — 사상 최고 다음 날, 세 지수 모두 하락

지수	8/17 증가	당일	비고
S&P 500	7,745.06	-0.52% (-40.70p)	8/13 사상 최고(7,798.99)에서 이를 연속 하락
나스닥	26,644.91	-0.32% (-84.25p)	—
다우	53,459.78	-0.51% (-272.63p)	—

미 30년물 국채금리 5.31%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	WTI (9월물) 84.50\$ +2.55% · 브렌트 90.87\$(+2.65%)로 90\$ 돌파	9월 인상 확률 (CME) 약 32% 동결 67.6% · 지난주 마감 수준 유지
---	--	---

장기금리가 뭘 이유로 보도는 셋을 짚습니다. 재정적자를 메우는 국채 발행 확대,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기술기업 회사채 발행 급증, 해외 보유국의 미 국채 이탈. 여기에 6월 17일 맺은 미·이란 60일 휴전이 연장 없이 만료되면서 유가가 뛰었고, 유가는 물가 재료라 장기금리를 한 번 더 밀었습니다.

유가 급등은 **인상 쪽 재료**입니다. 지난주 물가·소비 지표가 확률을 32%까지 내려놨는데, 이 값이 유지되는지가 이번 주 관전 지점입니다. 저희는 금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— 시장이 값에 얹어 둔 확률의 관찰입니다.

⑥ 금리가 오른 건 미국만이 아니다 — 일본, 그리고 엔캐리 경제

일본 10년물 국채금리 (8/18 장중) 2.945%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	닛케이225 (8/18 증가) 67,460.73 -2.54% (-1,759.52p)
--	---

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그 오후, 도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일본 10년물이 30년 만의 최고까지 오르자 **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**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— 싼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넣어 둔 돈이, 일본 금리가 오르거나 엔화가 강해지면 자산을 팔고 엔화를 되사며 **글로벌 자산 전반에 동시 매도**를 부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. 2024년 8월 일본은행 인상 때 실제로 전 세계 증시 급락으로 번진 적이 있고요.

다만 오늘 국내 낙폭에서 **엔캐리 청산이 얼마나 실제로 나왔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**.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건 "일본 장기금리가 30년 최고 → 닛케이 -2.54% → 청산 우려 재점화"라는 경계 심리까지입니다.

⑦ 다음 확인 지점

수 8/20 새벽 3시 7월 FOMC 의사록 공개(미국 8/19 14:00). 해맥 총재가 인상 소수의견을 낸 그 회의 — 인상파가 몇 명이었는지 처음 확인됩니다	금 8/21 관세청 8월 1~20일 잠정 — 41호의 반도체 비중 46.8% 유지 여부. 채점표의 마지막 미도래 항목	유가 · 일본 금리 브렌트 90\$ 위에 머무는지, 일본 10년물과 엔화가 더 가는지 — 둘 다 인상 확률과 엔캐리 경제의 변수	내일 국내 장 오늘 오후의 되돌림이 하루짜리인지, 방향 전환인지.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는지
--	---	---	---